

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슬직, 대담한 性

회사원인 34세의 백지환(가명)씨가 좌측 고환이 묵직하게 아프다며 찾아왔다.
5년 전부터 좌측고환에 뭔가 만져졌다던 백씨는 어느 날 음낭을 보니 마치 지렁이 여러 마리를 엮어 놓은 듯 보였다고 했다.
3년 전에 결혼한 백씨는 신혼 초부터 2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임신도 여의치 않았다며 아픈 속내를 드러냈다.
성인 15%가 '정계정맥류'
'정계정맥류'란 고환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나온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음낭 내에 정체되어 고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음낭이 흡사 라면줄기처럼 만져지는 것을 특

'씨없는 수박'인줄 알았더니 ...

정도로 하며 사춘기를 비롯한 모든 성인 남성의 15%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해부학적인 이유로 거의 대부분 좌측 고환에서 발생하며, 일단 발생하면 자연 치유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백씨의 좌측고환은 우측고환에 비해 크기가 약간 작았고, 정액검사 상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된 소견을 보였다.
생리적으로 고환은 정상체온보다 2~3도 낮게 유지되어 생식세포의 활성화를 유지시키고 정자의 기능에 최선의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계정맥류가 발생하면 음낭에 고인 혈액으로 고환은 온도가 상승되고, 그 밖의 여러 이유로 인해 고환의 성장 뿐 아니라 정자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백씨는 정계정맥류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 1년 만에 내원한 백씨의 정액검사소견은 괄목할만한 호전을 보였다.
그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백씨부부에게 임신을 했다는 좋은 소식도 마침내 들려 주었다.
현재 수많은 신혼의 부부들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불임원인의 하나인 정계정맥류 환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질환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나다 백씨처럼 내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치료하면 임신도 가능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계정맥류는 남성 불임의 단일 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 중 하나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계정맥류는 불임을 임신으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가능한 질환임을 유념해야 한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뉴스퀴즈

66. 최고 수준의 대함(對艦)·대공(對空)·대잠(對潛) 능력을 갖춰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KDX-III·7천600t급) 1번 함의 진수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이 구축함이 진수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미국·일본·스페인·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이 됐습니다.
시험운행을 거쳐 2008년 해군에 실전 배치될 이지스 구축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세종대왕함 ② 서해함
③ 남해함 ④ 제주도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일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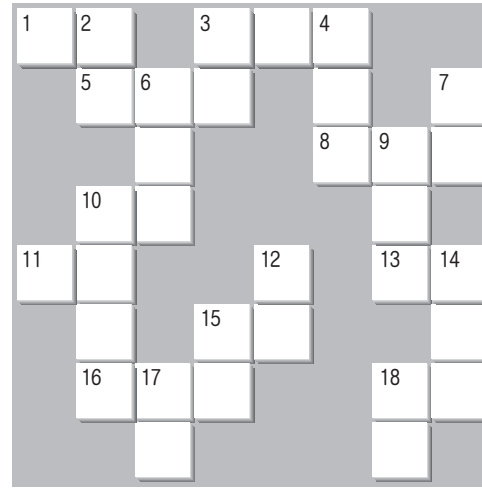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그는 결심을 당장 ~에 옮겼다. 3.전쟁에 참가한 나라. 터키가 한국전쟁 ~이다. 5.고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 붉은등을 켜 정지를 표시하는 교통신호. 또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 주는 각종 조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혈압은 건강의 ~이다. 8.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이 투표하는 날.→투표일. 10.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을 한결같음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법. 11.수정관이나 수란관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막아서 생식 능력을 없애는 일. 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특정 종류의 자동차 생산을 멈추는 일. 저 차는 곧 ~될 모델이다. 13.아내의 언니를 이르는 말. ~필 모델이다. 13.아내의 언니를 이르는 말. 15.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양이나 효력을 미

치는 일. 이 규정은 지난해 5월까지 ~해 적용된다. 16.물체를 그 길이에 직각이 되게 가로로 잘라 생긴 면.→종단면. 18.까니로 막을 음식 등을 만드는 일. 이면에는 그가 ~ 당번이다.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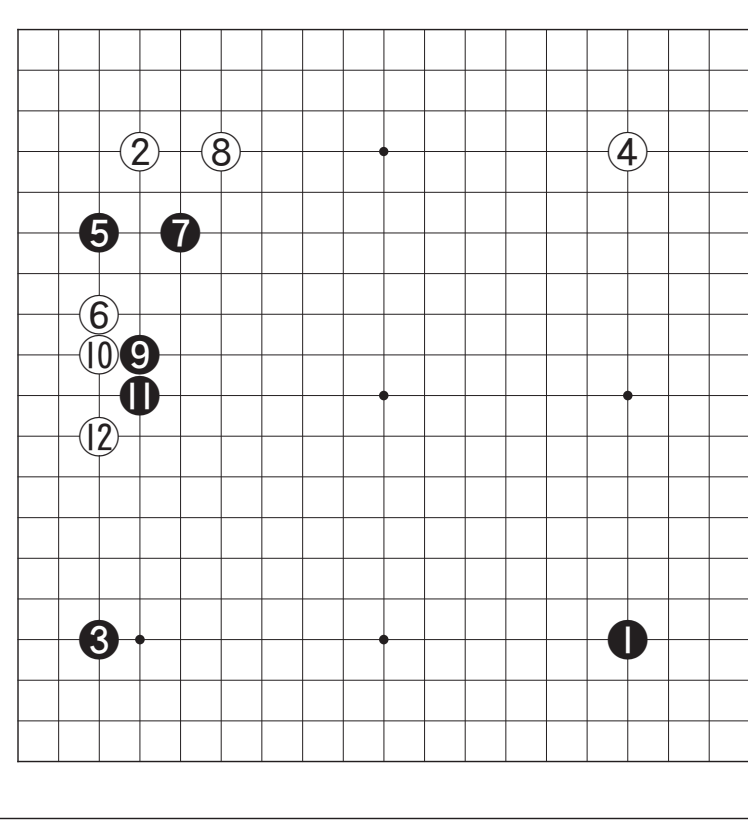
- 2.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히는 동물에 상대해서 이르는 말. 예를 들면, 쥐에 대한 뱀 등이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의 ~이다. 3.야전에서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해 방아쇠를 따라 관 구멍이. 4.철도, 항공 노선이나 전화선 등에서 나라 안의 교통이나 통신에만 이용하는 선.→국제선. 6.가정에서 구두나 운동화 등을 넣어두는 곳. 보통 현관에 있다. 7.오늘의 바로 다음날.→명일. 9.삼품을 사고 파는 일을 계속해 온 상대쪽을 이르는 말. 그 회사는 국내 ~만 3천여곳에 이른다. 저 상점은 우



<함께 풀어봅시다 252회 정답>

가치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리는 일, 또는 그 그림이나 무늬. 18.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등을 취소함.→철회, 고소 ~, 소송 ~.

- ▲지난주 정답자
조숙자·광주시 서구 화정동
김상진·광주시 북구 문흥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제16회 광일배 직장바둑대회

광일배 직장대회가 창설된 이래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참가하고 있는 팀이 광주시청과 조선대학교 팀이다. 두 팀은 입상경력이 화려해서 직장바둑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흑 이민재 4단은 바쁜 직장생활의 와중에서도 광주생활체육 바둑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아 이지역 바둑발전과 동료인들의 친목도모에 앞장서고 있는 바둑계의 숨은 일꾼이다. 이

바둑소식

윤준상, 왕위전에서 이창호 제압
윤준상 6단이 지난 25일 중국 스촨성 청두시에서 열린 제41기 KT배 왕위전 도전5번기 제1국에서 왕위 이창호 9단에 24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날 도전자 윤준상은 대국 초반 이창호 9단의 공세에 휘둘려 고전을 겪었으나 막판 접전에서 전세를 뒤집어 역전승을 일궈냈다.
제50기 국수전에서 이창호를 3-1로 꺾고 우승했던 윤준상은 이로써 2관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창호가 1국의 패배를 딛고 수성에 성공할 경우 왕위전 1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도전2국은 오는 6월 14일 한국기원에서 개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음 4월 12일 壬戌)

- 子 36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오히려 돌아온다. 48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되니 주의하여 들으라. 60년생 다투면 손해 요양보한 독이 된다. 72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4년생 금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02, 44
丑 37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49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볼라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 61년생 문단속을 알하면 걱정은 없다. 73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마음이 현란하다. 85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이니 내일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3, 25
寅 38년생 편안한 하루이니 큰 욕은 없다. 50년생 절정은 내일로. 손에 가 보아라. 62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74년생 초고후안 저들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03, 43
卯 39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51년생 마음을 바우고 지내면 채워지리라. 63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75년생 마음이 갈갈갈갈이다.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할 때. 행운의 숫자 : 24, 16
辰 40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라. 52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 있다. 64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라 어려운 일도 풀리리라. 76년생 좋은 옷 입고 즐거운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7, 31
巳 41년생 식욕이 넘치니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53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65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지난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잘 살펴 보라. 행운의 숫자 : 01, 45
午 42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54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가 된다. 66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78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 마음 편히 일하라. 행운의 숫자 : 21, 27
未 43년생 가정불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니 서로서 양보하라. 55년생 구할수가 타인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67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라. 79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석이조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 30
申 44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신사를 계획하라. 56년생 인성은 연출이다 멋지게 보내라. 68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80년생 지혜롭게 지내고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넓어진다. 행운의 숫자 : 14, 33
酉 45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57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69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81년생 돈이 생기니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0, 28
戌 46년생 알뜰살뜰 지내면 재물이 생길라. 58년생 남편 일이 쫓아다니니 오늘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70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주변을 둘러보라. 82년생 인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12, 35
亥 47년생 은 식욕이 평안하다. 59년생 어려움은 잠시 일 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71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83년생 전리 길도 한결같음부터 거둔다. 행운의 숫자 : 22, 2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13> 오하요우 니혼고 <913> 니하오 쥬구워 <104> 한자 이야기 <530>

I want to send this letter to Paris
이 편지, 파리로 부치려고 하는데요
A: I want to send this letter to Paris
B: By airmail of seamount?
A: Airmail, please.
B: It will cost you 40 dollars.
A: Here is 40 dollars. Thank you.
A: 이 편지를 파리로 부치려고 하는데요.
B: 항공우편입니까? 아니면 배편입니까?
A: 항공우편으로 해 주세요.
B: 40달러가 되겠습니다.
A: 여기 40달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t will cost you ~ : 가격은 ~이 되겠습니다
우체통'우체국'이 어디에 있죠?
= Where is the mailbox/post office?
특별우편으로 보내고 싶는데요
= I'd like to send this by special delivery
저는 이 편지를 등기로 부치고 싶습니다
= I want to register this lette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裏(うら)ではどうでしょうか
속마음은 어떨까요
A:日本人はとても親切(しんせつ)だと言われていますね。
B:表(おもて)はそうですけど、裏(うら)ではどうでしょうか。
A:本心(ほんしん)は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やはり親切な方がい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
B:それぞれの国によって国民性(こくみんせい)がありますからね。
A:일본인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겉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A:본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친절할 것이 좋지 않습니까.
B:각각의 나라에 따라서 국민성이 있으니까.
言(い)われている : 일컬어지고 있다
本心(ほんしん) : 본심
どうか : 어떤지
やはり : 역시
~によって : ~에 따라서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还有别的颜色吗?
또 다른 색이 있나요?
A:看, 我买了一个红色的包。
Kan, wó mǎi le yí ge hóngsè de bāo.
칸, 워 마이 러 이 게 홍 색 더 바오.
B:真漂亮! 还有别的颜色吗?
Zhēn piàoliang! hái yǒu bié de yánsè ma?
쩐 피아오리양! 하이여우 비에더 엔서 마?
A:还有白的和黑的。
Hái yǒu bái de hé hēide.
하이여우 바이 더 허 헤이 더.
B:太好了, 我喜欢白的。
Tài hǎo le, wǒ xǐhuān bái de.
타이 하오 러, 워 시한 바이 더.
A:뵤, 나 빨간색 가발하나 샀어.
B:정말 예쁘다! 다른 색도 있어?
A:하얀색과 검정색이 있어.
B:잘됐다, 나는 하얀색이 좋아.
别的 [biéde] 다른 것
包 [bāo] 가방
太好了 [tài ~le] 너무 ~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岩下老佛(암하노불)
바위 암, 아래 하, 늙은 노, 부처 불
암하노불(岩下老佛)은 큰 바위 아래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강원도(江原道) 사람의 기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강원도는 명주(溟洲)와 삭주·교주로 불리다가 조선 초에 강릉(江陵)과 원주(原州)에서 첫 글자를 따서 현재의 이름을 삼았다. 강원도는 태백산맥(太白山脈)에 의해 동·서로 나뉘지는 데, 영동(嶺東)과 영서(嶺西)는 기후(氣候)를 비롯하여 역사, 문화, 풍속이 서로 다르다. 영동은 해안선을 따라 강릉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영동과 영서 사람들은 태백산맥의 갈라진 곳 즉 고개를 통하여 교류하였기 때문에 강원도는 대체로 교류가 불편하였다. 그나마 수력발전소가 세워지기 전에는 남한강·북한강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하여 뱃길이 이어졌지만, 현재는 모두 막혀 끊어진 상태이다.
이런 불편한 환경으로 인하여 강원도 사람을 '감자바위' 또는 '암하노불'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산골에 사는 착하기만 하고 진취성이 없다는 의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품(性品)이 '어질고 인자하다'는 뜻도 가진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